



John 13

요한복음 13
Tape #8081
By Chuck Smith

John chapter thirteen. 이제 요한복음 13장이다.

Now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when Jesus knew that His hour was come that He should depart out of this world un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ich we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unto the end (13:1).

Or as in the revised standard, “He loved them unto the uttermost.” It’s interesting that John doesn’t give us any of the details of the feast of the passover with His disciples. He just tells us that the feast had come and Jesus knew that His hour had come. According to God’s determined counsel and purposes, Jesus was to be crucified on passover. And thus fulfill the shadow that was cast into the Old Testament that brought about the holiday of Passover. 표준 개역 성경에는 “그분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유월절에 대해 상세한 기록이 없는 것이 흥미롭다. 요한은 유월절이 다가왔으며 예수님은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셨다 라고만 말한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유월절 축제에 드리워진 구약의 그림자를 성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Going clear back to Egypt when Moses had been directed by God to demand the release of the children of Israel from the bondage in Egypt and the subsequent plagues that the Lord brought upon the Egyptians, that final plague in which God was to take the firstborn of every household in a judgment against the Egyptians, He commanded the children of Israel that they take a lamb out of their flock first year and they were to slay the lamb and put the blood in a basin and sprinkle it upon the lintels and the doorposts of their house. And the Lord declared when He went through the land that night, when He saw the blood upon the lintels and doorposts of the house, He would pass over that house. Hence the term, passover; and hence, the feast. The sacrificial lamb. By it dying, it saved the firstborn in the house from death.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게 틀림없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박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다. 뒤이어서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퍼부어졌으며, 그 마지막은 애굽 사람들을 쳐서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게 한 재앙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년 된 어린양을 잡아 죽인 후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피를 보실 경우 그 집을 유월(逾越)하여 가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그 축제의 이름이 유월절이 된 것이다. 희생제물이 된 어린양, 그것의 죽음으로 인하여 집안의 장자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It was a beautiful foreshadowing of Jesus, the Lamb of God, dying for us that we could escape death. That is, that spiritual death. And so Paul tells us that the Old Testament holidays, “new moons, and sabbath days: were all a shadow of things to come: the substance is Jesus” (Colossians 2:16,17). And so it was foreshadowing Jesus, the Lamb of God who delivered us from death. And thus, Jesus celebrated with His disciples this Jewish feast of passover but when He celebrated with His disciples He brought to them the full meaning.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행하실 일을 묘사한 아름다운 사건이었다. 바울은 구약의 축제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 2:16,17). 따라서 유월절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예시(豫示)하는 절기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셨을 때 그분은 저들에게 이 절기의 온전한 의미를 확연히 전달하셨던 것이다.

He said, “This cup is a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the remission of sins] (Luke 22:20). “This bread is My body, that is broken for you” (1 Corinthians 11:24). Substance is Jesus. So knowing now that He is going to give Himself on Passover, to fulfill that type and shadow from the Old Testament, He

loved His own unto the uttermost. He loved them. He was close to them.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전 11:24). 그리스도가 이 절기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이 유월절에 죽어 구약에 나온 모형을 성취하여야 할 것을 아시던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친근히 하셨다.

As I said, John doesn't give us any details of the Passover supper. That is given to us by the other gospels. And in the other gospels, we have quite a few details, even of the preparation. How Jesus sent the disciples into the city. There will be a man carrying a jug of water. Follow him into the house and there prepare the upper room that we might have the Passover supper in it. Tells us the interchange between Jesus and the disciples. John leaves all of that out and probably because it was covered in the other gospels. And John wrote his gospel probably forty years after the other gospels were written. So he was familiar with the other gospels and felt that that had been covered and was not necessary for him to cover it in his gospel. 내가 앞서 말한 대로, 요한은 유월절 저녁 식사에 대해 전혀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기록이 나온다. 아주 상세히 나온다. 심지어는 그 준비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아마도 다른 복음서들이 완성된 후 40년이 지나서였을 것이다. 요한은 그런 복음서들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미 기록된 내용을 반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So we go from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to after supper. Between verses one and two, we jumped a few days probably, a couple of days, jumped here and after the supper.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이전에서 곧바로 유월절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1절과 2절 사이에는 수일의 시간 간격이 있을 것인데, 그 간격을 뛰어넘어 우리는 유월절 저녁 식사 후로 직행하게 된다.

The supper being ended, the devil having now put into the heart of Judas Iscariot, Simon's son, to betray him; Jesus knowing that the Father had given all things into his hands, and that he was come from God, and was going to God; He rose from the supper, and laid aside his garments; and He took a towel, and girded Himself (13:2-4).

Jesus had said to His disciples recorded in Matthew's gospel, “All power is given unto Me in heaven and in earth” (Matthew 28:18). “Jesus knowing that the Father had given all things into His hands.” What does He do? Here is the power of the universe vested in Him. What does He do with that power? He goes over and He takes a towel and girds Himself.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주의 권세가 그분께 주어져 있었다.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The scripture commands us to gird up our loins. What does that mean? And we read so often that they girded themselves. In those days, people wore long robes, clothing. And it was for warmth but it could be cumbersome if you tried to run or to work with a long robe down to your ankles. And so when they were going to work or when they were going to battle, they would gird themselves. That is, they would pull up the robe and they would tie a sash so that then they would have a short type of a tunic. Plenty of freedom of movement. And so when a slave would go to work, they would always take and pull the robe up, gird themselves so that they would have the freedom of movement. And you'd always see a slave with girded robe. 성서는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라고 명령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이 허리를 동였다는 기록을 우리는 자주 읽게 된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었지만, 긴 옷을 발치까지 늘어뜨린 채로 일하거나 달리려면 거추장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하러 가거나 전장으로 나아갈 때면 사람들은 허리를 동이곤 하였다. 옷을 끌어올려

끈으로 묶음으로써 짧은 옷을 입은 것처럼 만들었으며, 그러면 활동하기가 훨씬 더 편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종들이 일하러 갈 때면 언제나 옷을 걷어올리고 허리를 동임으로써 활동하기 편리하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옷을 걷어붙인 종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So Jesus went over, took a towel and girded Himself with a towel. And then He came back,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은 후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After that he had poured the water into the basin, and He began to wash the disciples' feet, and to wipe them with the towel that He had used to gird Himself. Then when he came to Simon Peter: Peter said unto him, Lord, dost thou wash my feet?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What I do you do not know now; but you will know (13:5-7).

So Peter objected and rightfully so, I think. I can't imagine the Lord washing my feet and yet, that's just the kind of Lord I serve. It's sort of when He came to John the Baptist to be baptized. John said, Lord, You ought to be baptizing Me. And I'm sure Peter felt, Lord, I should be washing Your feet. And so Jesus just said, Peter, you don't understand now. You will understand. 베드로가 이 일을 말렸는데, 내 생각에 그것은 잘 한 일이었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신다고 가정해 보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런 부류의 일이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 드렸다: 주여,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께서 제게로 오시나이까. 본문의 베드로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주여, 제가 오히려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할 텐데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니라.

Peter said unto him, You will never wash my feet (13:8).

I won't allow that. 나는 이 일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Jesus answered him, If I don't wash you, you really have no part with me. Simon Peter saith unto him, Lord, not my feet only, but also my hands and my head (13:8,9).

Peter's all gung-ho, all the way. If it means being a part of You, Lord, I want it all. And I love Peter for this. Yes, he's impetuous but you got to love him.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뭐든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다. 주여, 만일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제 몸 전체를 씻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맘에 든다. 그렇다. 그는 성격이 격렬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를 나무라서는 안 된다.

Jesus said to him, He that is washed need not save to wash but his feet, he is clean every whit: and now you are clean, but not all (13:10).

In the Roman baths, which they had Roman baths in Israel at the time up in the area of the Yardenet, not the Yardenet, the area of Galilee. It's the southern part of the sea of Galilee and over on the Golan side. They have a Roman bath that is still being used to the present day. And when they would come from the baths, they'd be there, they would have bathed. But when they came from the baths, as they would come into the house, of course, they have picked up dust on the way and thus, they would wash just their feet. But they were completely clean and all they needed was their feet to be washed. And so Jesus is making an aversion to this. All you need is your feet. "He that is washed needs not save to wash his feet, he is clean every whit: and you are clean, but not all."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식 목욕탕이 있었다. 갈릴리 지역에는 없었으나 그 위쪽 지방에는 있었다. 위쪽 지방이란 갈릴리 바다 북부 골란 지역을 말한다. 거기에는 로마식 목욕탕이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목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오곤 하였다. 그들이 목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경우 길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냥 발만 씻으면 되었다. 몸은 깨끗하므로 발만 재차 씻으면 되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것이었다.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For Jesus knew who should betray him; therefore He said, You are not all clean (13:11).

John lets us know that Jesus knew Judas Iscariot. Earlier in the gospel, John tells us that Jesus said, Have I not chosen twelve of you, and yet one of you is a devil? Jesus calls Judas the son of perdition. And so He says, Are you not all clean, but not all. He knew who would betray Him. Therefore He said, You're not all

clean.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가롯 유다를 이미 알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복음서 초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은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를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So after that He had washed their feet, and had taken his garments, went back over and put on His robe again, then he said unto them, Do you know what I have done to you (13:12)?

Did you get what I’m trying to tell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너희는 파악하였느냐?

You call me Master and Lord: and you say well; for so I am. If I then, your Lord and Mast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13:13,14).

Jesus had said unto them concerning the ministry, “He that is chief among you, let him be the servant of all.” Jesus said “the Gentiles, they love to exercise lordship over others. But it shall not be so among you. And he that is a minister among you, let him be as one who serves” (Mark 10:42-44). So Jesus now is demonstrating to His disciples what the ministry is really all about. It is serving others. It is the call of God to serve others. And so this is what He was saying to Peter, You don’t understand right now but you’re going to understand because Jesus is going to explain what He’s doing in washing their feet.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막 10:42,44). 이제 예수님은 사역이 진실로 무엇인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시연해보이시고 계셨던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발을 씻어주신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분께서 친히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You call Me Lord, you call Me Master. That’s correct, I am that. But if I am your Lord and Master and I wash your feet, then it’s an example, you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기도 하고 주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며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당연히 그 모범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For I have given you an example, that ye should do as I have done to you (13:15).

I’m just giving you an example of what the ministry is about. Peter tells us that Jesus set an example for us that we should follow in His steps. 나는 지금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베드로는 자기 서신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한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lord; neither he that is sent greater than he that sent him (13:16).

I’m sending you. You are My servants. You’re not greater than I am. If I, your Lord, am willing to serve you, then you must be willing to serve others. I’ve set the example for you. 내가 너희를 나의 종으로 파송하겠다. 너희는 나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의 주인인 나도 너희를 섬겼다면, 너희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If you know these things, happy are you if you do them (13:17).

There are certain fellowships in the body of Christ who, to the present day, practice foot washing. They have foot washing services. I have never been in one. I have had, on a couple of occasions, people who felt that the Lord had called them to wash my feet. If I had had an advance notice, I would have changed my socks. But there are churches that do practice foot washing services even to the present time. 오늘날에도 발을 씻기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기독교도들이 있다. 그들은 서로 발을 씻기는 봉사를 한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적은 있다: 주께서 자기를 불러 명하셨다고 하면서 내 발을 씻기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 미리 그럴 의사를 통보하였다면 내가

양말을 갈아 신고 기다렸을 것인데,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하여튼 오늘날까지 발을 씻기는 관습을 견지해오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We do not accept it as general church practice. The reason being is that we really do not find any examples of it in the book of Acts, nor is there any real definitive teaching on it in the epistles. And generally, that which we accept for church practice is something which was practiced by Jesus. We have examples of it in the book of Acts and then we have teaching on it in the epistles. Thus, water baptism. Taught by Christ, commanded by Christ. We find it practiced in the book of Acts and we find teaching by Paul on the subject of water baptism in the epistles. And thus, we accept water baptism as one of the ordinances of the church today. 우리는 이것이 교계 일반의 관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서신서들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우리가 교회의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께서 행해보이신 일이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서신서에도 그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물세례 같은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며 명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관습을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바울이 서신서에서 물세례라는 주제로 교훈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세례를 오늘날에도 교회의 성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The partaking of the Lord's supper. It was taught by Jesus and He said, "As often as you do these," it was practiced in the book of Acts and again we have teaching on it in the epistles. And that is why we practice as one of the ordinances of the church the taking of the Lord's supper. 성만찬을 보자.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성만찬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서신서들에도 나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날에도 주의 만찬에 참석하며 이것을 성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But though Jesus set the example of foot washing, as I said, it doesn't live up to the full criteria. We don't really find it as a general church ordinance or practice in Acts nor do we find it really taught, as I said, in a definitive way in the epistles. And thus, we don't practice foot washing today. 한편 발을 씻기는 관습에 대해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관례는 필요충분 조건을 다 갖추지는 못했다. 일반적인 교회의 성례나 관례로 굳어진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없으며, 서신서에도 그 관례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예식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In those days, it was a very common practice because people generally wore open sandals. The streets were very dusty or many times there was no paving at all, just dirt paths. And thus, your feet would get dirty. And when you would come in to a home that was all cleaned and all, the servant would be at the door to greet you and to wash your feet. Your sandals would be left then at the door and you would go in barefooted. And even to the present day in many of the Oriental cultures, you don't wear shoes into the house. You take your shoes off before you enter the house. And it's still a custom in the Orient in many places. 그 당시에는 발을 씻기는 것이 아주 흔한 모습이였다. 사람들이 대개 발가락이 나오는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이다. 거리는 매우 지저분하였고, 포장 안 된 도로가 지천이어서 길들은 먼지가 매우 많이 났다. 그러므로 발이 쉽게 더러워졌다. 잘 청소를 해놓은 집으로 들어올라 치면 종들이 문간에 서 있다가 인사를 꾸벅 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발을 씻겨줄 것이다. 여러분은 신발을 문 앞에다 벗어둔 다음 맨발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러 동양 문화권에서는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곤 한다. 신발을 신은 채로는 결코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동양에서는 지금도 그런 관습을 유지하는 곳이 여럿 있다.

And so you can see the necessity for it and of course, you can see how that it would be a real example of that of a slave because usually the lowest slave in the house was the one whose duty it was to wash the feet of the guest who would arrive. 그러므로 여러분은 발을 씻겨야 할 필요성을 알았을 것이며, 예수께서 종의 도리를 참으로 잘 보여주셨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한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직임을 대개 담당하고 있었다.

Years ago here at Calvary Chapel when we had just built the little chapel on the next corner and we have

put this long shag carpeting which was popular then, it was the “in”; and we got a green color because we wanted to give the idea of a lawn, and we had the glass windows and the grass right outside so it was sort of bringing the outside in and we had burnt orange pews so that you get the idea of sitting in a garden to worship God. It was very lovely, very beautiful. 수년 전의 얘기다. 이곳 갈보리 교회의 부속 건물로 작은 예배당 하나를 저편 구석에다 건축한 후 우리는 이 털이 많이 달린 카펫을 깔았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것은 안쪽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녹색으로 된 카펫을 깔았는데 이는 잔디밭과 같이 보이고 싶어서였다. 그리고는 창유리를 달았고 바로 그 너머에는 잔디가 있었다. 예배당 안에 있으면 잔디 위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의자는 황갈색이었다. 그러므로 정원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였다.

And so the fellow who sold us the carpet, because some of the hippies had started coming to the church, and really they helped us in the construction of the chapel very much, and he said, I just want to warn you. He said, The worst thing in the world for a carpet is bare feet. He said, There is an oil in your foot when it mixes with the dirt, it’s practically impossible to get out of the carpet. And so you really need to think about that with all these barefooted kids coming to church. 그 당시 몇몇 히피족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예배당 짓는 일을 아주 많이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 카펫을 우리에게 매대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카펫을 깔았을 때 가장 고약한 것은 맨발입니다. 발에는 기름기가 있는데, 그것이 먼지와 함께 섞일 경우 카펫에서 그 때를 벗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맨발의 청춘들이 다니는 교회에 카펫을 까는 일을 재고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So an issue arose whether or not we should allow the kids to come into church barefooted because of this beautiful carpet. And so when some objected and voiced objections to them coming in barefooted and all, I said, Well, if this is going to become an issue, I said, personally I’m in favor of ripping the carpet out and having concrete floors so that we can just say, “Hey, come on in” to anybody, barefoot or not. And if that’s still a problem, next Sunday I’ll be at the front door with a basin of water and I’ll wash these kids’ feet before they come in to church. They were embarrassed about the pastor sitting out with a basin of water. And so they relented and let them come. What’s a little dirt on the carpet. I don’t know. The Lord must have put some kind of a stain guard on that because that carpet just wouldn’t wear out, even when shag went out, it was still good. What can you say! 그리 하여 그 맨발의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 아름다운 카펫 때문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들은 맨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금지시키자고 하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맨발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카펫을 제거하고 시멘트 바닥을 드러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하여 아무에게나 신발을 신었든 벗었든 간에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정녕 문제가 된다면 다음 주일에는 내가 물을 대야에 담아 가지고 문간에 서 있다가 그 애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발을 씻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문간에서 대야에 물을 담아 가지고 서 있겠다고 하니까 기겁을 했다. 그리하여 결국은 저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카펫에 때가 좀 묻기로서니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주께서 때 타지 못하게 하는 수문장을 문간에 세워 두심으로 카펫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설사 그 양탄자가 없어진다 한들 문제될 게 뭐란 말인가. 그런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But there was a need for washing feet in those days. Thus, it was a beautiful gesture. But as I say, we don’t really find the church practicing that as we come into Acts.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문은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교회 관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Jesus said,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I speak not of you all: I know whom I have chosen: but that the scripture may be fulfilled, He that eateth bread with me hath lifted up his heel against me. Now I tell you before it is come, that, when it is come to pass, you might believe that I am he (13:18,19).

The prophecy of scripture. That “he who eats bread with Me is going to lift up his heel against Me.” That is, He would be betrayed by a close, intimate associate. Because eating bread, as we have mentioned before,

was a very significant experience for them symbolizing a oneness, a closeness. And so the prophecy was He would be betrayed by an associate. And so Jesus said, "I've told you before it comes to pass that, when it does come to pass, you will know that I am He." 성서의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친밀하고 절친한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는 사람들을 친밀하게 하고 하나로 묶는 매우 의미심장한 경험이었다. 그러므로 성서의 예언은 그분이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Actually, prophecy is intended to prove to us that God is eternal outside of time. It is also used to prove that the Bible is inspired by God. For He "declares the end," He said, "from the beginning" (Isaiah 46:10). He laid out history in advance. He told things that were going to be before they ever were so that "when they did come to pass, you might believe" that this was truly God which spoke and that God is eternal outside of time. So He said, 사실상, 이 예언은 하나님은 영원히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분은 "처음부터" "종말에 대해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사 46:10). 그분은 역사를 미리 배정하신 분이다. 그분은 사건이 도래하기 이전에 미리 그에 대해 말씀 하심으로써 "정작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로 믿게 하고자" 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receives whomsoever I send receives me; and he that receives me receives him that sent me (13:20).

So you have been sent by the Lord to bear witness. If a person receives you, they receive Jesus. If they receive Jesus, they receive the Father. In the same token, if they reject you, they're not rejecting you, they're rejecting Jesus; and if they're rejecting Jesus, they're rejecting the Father. When the disciples were rejected, they rejoiced that they were counted worthy to suffer persecution for Jesus' sake.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증인이 되도록 과송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그들이 우리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된다.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했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로 여김을 받은 데 대해 기뻐하였다.

When Jesus had thus said these things, He was troubled in His spirit (13:21).

In the previous chapter, we find Him troubled in His soul. In the emotions. He was troubled at the tomb of Lazarus. And now He's troubled in His spirit, 앞의 장에서 우리는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감정에 복받치는 주님을 보았다. 그분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그랬다. 여기서서는 심령에 민망해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

and He testified, and said,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at one of you shall betray me (13:21).

One who has eaten bread with Me will lift up his heel. 나와 함께 떡을 먹은 자가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 것이니라.

Then the disciples looked at one another, doubting of whom he spake (13:22).

The interesting thing to me is that the disciples did not suspicion Judas Iscariot. He must have pulled off his role pretty cleverly in that there seems to be no indication that he was a suspect at all above the others. So when Jesus came out direct and said, One of you is going to betray Me, they looked at one another, wondering who it was.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무도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지 않은 점을 보면 그가 얼마나 능란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언급하실 수 밖에 없었다: 너희 중의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누가 그런 사람일까 하고 궁금히 여기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Now there was leaning on Jesus' bosom one of his disciples, whom Jesus loved (13:23).

And as we pointed out before, John's the only one who tells us that he was the disciple that Jesus loved.

In none of the other gospels is John called John the beloved, nor do any of the other gospels say that Jesus especially loved John. He's the only one that tells us that. I think it's great when you know that Jesus loves you. I think it's wonderful that John had that feeling. He loves me. And that's the feeling that we should all have. He loves me. And so John is using this to describe himself, "leaning on the bosom," the closeness of John. He was that kind of a person. Was close to Jesus, leaning there on Him. 앞에서 우리가 지적한 대로,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표현도 물론 없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그렇게 칭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한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데 대해 나는 아주 좋게 생각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도 모두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은 자신을 묘사하면서 이런 표현도 사용하였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분의 품에 의지하여 누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

Simon Peter therefore beckoned unto him, that he should ask who it should be of whom he spake. So then he that was lying on Jesus' breast saith unto him, Lord, who is it? Jesus answered, He it is, to whom I shall give a sop, when I have dipped it. And when he had dipped the sop, he gave it to Judas Iscariot, the son of Simon (13:24-26).

The sop was a gesture of friendliness. It's sort of like lifting the cup in a toast. A gesture of friendliness and Jesus gave the sop to Judas. 이 떡 한 조각은 우정의 표시였다. 마치 건배를 청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애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던 것이다.

And after the sop Satan entered into him. Then said Jesus unto him, What you do, do quickly (13:27).

Judas had already been to the high priest. He had already struck his deal. He had already covenanted with the high priest that he would lead them to Jesus in an isolated place away from the public crowds where they could arrest Jesus without stirring the public because the people were looking at Jesus as a prophet. And so Judas had already made his covenant with the high priest. John tells us when He gave him the sop, Satan entered him. Jesus said, "Have I not chosen you, but yet one of you is a devil" (John 6:70)? There are some Bible scholars who believe that Judas Iscariot was not really a man. That he was Satan incarnate. That's hard and difficult to prove, it's just a theory by some theologians but it's something to consider. And so Jesus commanded him, "What you do, do quickly." Jesus is still in control. John tells us and here again, the interesting thing, 유다는 벌써 대제사장에게 갔다 온 상태였다. 그는 이미 거래를 마친 상태였다. 예수가 있는 호젓한 곳으로 저들을 안내해 주기로 그는 이미 대제사장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체포하였다가는 소요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이미 대제사장과 그런 계약을 맺은 유다였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 6:70). 가룟 유다가 실제의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경 학자들이 있다. 사단의 사주를 받은 학자들이다. 그것은 증명하기 아주 어려운 단순한 이론으로서 소수의 신학자들만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이론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는 일의 주도권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있다는 증거다. 한편 여기서, 요한은 다시 한 번 흥미 있는 사실을 밝힌다.

Now no man at the table knew for what intent he spake this unto him. Some of them thought, because Judas was the treasurer, he kept the money, that Jesus had sent him out to buy those things that they would need for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or, that he should go out and at this time give a gesture by giving something to the poor (13:28,29).

As is often the case at Christmas or Thanksgiving when we think of the poor and as a part of our celebration, we like to give something to the poor. So the disciples thought, Jesus has sent him out to maybe buy something for the preparation for the feast, or maybe He sent him out to give something for the poor. But you see, they didn't suspicion Judas, which is interesting to me.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저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내어보내서 뭔가를 사다가 절기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중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눈곱 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He then having received the sop went immediately out: and it was night. Therefore, when he was gone out, Jesus said, Now is the Son of man glorified, and God is glorified in him (13:30,31).

The time has come. 드디어 그 시간이 도래하였다.

If God be glorified in him, God shall also glorify him in himself, and shall straightway glorify him (13:32).

In the previous chapter, Jesus said, “What shall I say? Father, deliver Me from this hour: yet for this hour have I come. Father, glorify Thy name. And the Father responded, I have glorified it, I will glorify it again” (John 12:27,28). So now the time is come.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대” (요 12:27,28). 이제 그 시간이 온 것이다.

Little children [in terms of endearment, as little children 이 표현에는 귀엽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yet a little while I am with you. You shall seek me: and as I said unto the Jews, Whither I go, you cannot come; so I say that now to you (13:33).

Just a little while, you’re going to be seeking Me: but you can’t come.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려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A new commandment I give un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13:34).

That is an amazing commandment. In the first epistle of John, and I would suggest for you, advanced students, that you go ahead and read the first epistle of John this week and notice how John refers to the commandments of Jesus. Jesus in a little bit, in the fourteenth chapter actually, in the next chapter, will also say, “He that hath My commandments, and keepeth them, he it is that loveth Me: and he that loveth Me will be loved of the Father, and we will come and manifest ourselves to them” (John 14:21). 이것은 놀라운 계명이다. 요한1서에도 나오는 계명이다. 잘 알아듣는 여러분에게 내가 권고한다. 집으로 가서 이번 주 안에 그 서신을 읽어보도록 하라.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 요한이 상세히 언급하고 있을 것이다. 실은 조금 더 나아가면 다음 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1).

But in his first epistle, John will make reference to the commandments of Jesus. What is the commandment? That we love one another as He has loved us. One commandment but boy, does that cover everything! Our loving one another as He loved us. 요한1서에서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내가 말했는데, 그게 어떤 계명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한 가지 계명이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그런 계명이 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He said, “Greater love has no man than this, that a man will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John 15:13).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at is, with that love that is so deep that we will lay down our lives for each other.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3).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By this shall all men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one to another (13:35).

As I look at the church history, my heart aches because there has been so much hatred manifested between different denominations, or different sects. There have been what were termed “holy wars” if there

be such a thing. I don't think any war is holy. But you read *Fox's Book of Martyrs*, you read of the atrocities during the period of the reformation and neither side was totally innocent. We read Calvin's institutes but you read some of the things that Calvin said and Calvin did and nobody is innocent.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마음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단 간에 그리고 종파 간에 서로 증오하고 반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소위 '성전(聖戰)'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나는 전쟁은 어느 것이고 거룩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직접 '팍스의 순교사'를 읽어 보라. 종교개혁 시절에 얼마나 잔혹한 행위들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편도 100% 무죄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읽어 보라. 칼빈의 언행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이다.

And how we could come so far from the commandment of Jesus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I'm not referring just to those in our body here but for the whole body of Christ. That we develop a love for all, even those that don't agree with us on every issue. That we have this kind of love that will bear witness to the world that we are His disciples.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계명으로부터 이다지도 멀리 떨어지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만을 대상하는 하는 얘기가 아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통틀어볼 때 그렇다는 말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매사에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Simon Peter (13:36)

Not so interested in this commandment as he is the things that Jesus has been saying about I'm going away and you can't come, so he,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관심도 없던 베드로였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터인데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가 쏠렸던 베드로는 이렇게 물었다.

said unto him, Lord, where are You going? Jesus answered him, Where I am going, you can't follow Me now; you will follow me afterwards (13:36).

I think that Peter realized that Jesus was talking about death. When Jesus said this to the Jews, they thought that maybe He was talking about committing suicide. Is He going to kill Himself? And in another place where He told the Jews the same thing, they said, Where is He going? To the Gentiles to teach them? What does He mean? But I think that Peter caught the meaning because,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저가 자살을 하려는가? 라고 수근거린 적이 있다. 저가 스스로 죽으려는가?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저가 어디로 가려는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는가? 저의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은 듯하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He said, Lord, why can't I follow You now?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r sake (13:37).

Lord, if You're going to lay down Your life, I'll lay down mine. I'll follow You into death. It's interesting that Jesus said, "Where I go, you cannot follow Me now but you will follow Me afterwards." Interesting that all of them did follow Him in death, with the exception of John, the writer of this book. Every one of the disciples suffered violent death at the hands of men for their witness and testimony of Jesus Christ. And when they came to crucify Peter, he said, Look, crucify me upside down, I'm not worthy to die as my Lord. 주여, 당신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흥미롭다. 결국은 이 책의 필자인 요한만 빼 놓고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 죽었으니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사람들의 손에 잔인하게 죽어갔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달려고 다가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So "Peter said, Lord, why can't I follow You?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r sake." 어쨌든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Jesus answered him, Will you lay down your life for my sake (13:38)?

Peter had made quite a great claim. Jesus is challenging it. “Will you lay down your life for My sake?” 베드로는 대단한 주장을 한 것이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을 확인하고자 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진정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The cock shall not crow, till you have denied me three times (13:38).

Luke tells us that when Jesus told this to Peter, Luke gives us a little more addition here, He said, “Simon, Simon, Satan has desired you that he might sift you like wheat. But I have prayed for you. And when you’re converted, strengthen your brethren” (Luke 22:31,32). And then He predicted how that the sifting by wheat was going to be Peter’s failure in that test where he denied his Lord. He said you’re going to deny that you even know Me. Peter objected. He said, Lord, if they would kill me, I would never deny You. And yet we know that Peter did deny Him.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31,32).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 사단의 밀 까부르듯 하는 시험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예언하셨다. 너는 장차 나를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반대하였다. 주여,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결국 부인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There are issues involved in the denial of Peter that I think led directly to the denial. First of all, I think that this boasting in himself. Lord,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That’s boasting in himself.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직접적인 요인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였다. 주여, 저는 당신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과신한 말이다.

The second was his arguing with the Lord. Know this, if you ever find yourself in an argument with the Lord, you’re wrong. He thought he knew himself better than the Lord knew him. He was indignant when Jesus said, You’re going to deny me three times before the rooster crows. He was indignant, Lord, I would never deny You.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And so that boasting in himself and arguing with the Lord. Those are a couple of issues that can get you into trouble.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려고 하였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만일 주님과 더불어 논쟁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주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화가 나기까지 했다. 주여, 제가 결단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니 까요. 저는 당신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하는 한편 주님과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런 서너 가지 이유로 인하여 베드로는 시련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

Next we find Peter sleeping in the garden when the Lord told him to pray. “When Jesus had come back to the disciples, He said, Peter,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Watch and pray, lest ye enter into temptation: the spirit indeed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Matthew 26:40,41). Sleeping when you should be praying. 다음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감람산 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 26:40,41). 기도해야 할 때에 잠을 자는 것도 실패의 한 원인이다.

The fourth thing that we see is when Jesus was arrested and led to the house of Caiaphas, the high priest, we read, “And Peter followed afar off” (Matthew 26:58). Attempting to follow Jesus afar off is another thing that can lead to denial. If you’re going to follow Jesus, stick just as close as you can. The closer the better.

Don't try and follow afar off. 네 번째의 이유는 이렇다. 예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좇아갔다” (마 26:58). 멀찍이 예수님을 좇는 것은 실패에 이르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좇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바짝 달라붙어서 좇기를 바란다.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좋다. 멀찌감치 뒤떨어져서 좇을 생각일랑 하지 말라.

And then finally, where was he when he denied the Lord? He was warming himself at the enemy's fire. Be careful about trying to find warmth at the enemy's fire. Sometimes Christians seek to do that. They seek to go back into the worldly things to find a little warmth, little excitement. And they're in the wrong place. And being in the wrong place can often lead to denial.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언제 어디서 주님을 부인하였는가? 원수가 피어놓은 불을 쬐고 있을 때였다. 원수의 집에서 불을 쬐고자 하는 행동을 조심하라. 가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잠시의 일락과 쾌락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는 것이다. 그릇된 자리에 가 있으면 자연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So with Peter, you can sort of follow the course that began with self-confidence, boasting of himself. So when Peter said, “Lord, why can't I follow You?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Jesus said, Will you lay down your life for Me?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the cock shall not crow till you have denied Me three times.”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자만과 자기 과신에서 비롯된 길을 걸어가게 될 수가 있다. 베드로는 이렇게 큰소리쳤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I don't like to stop there though I know it's the end of the chapter. I believe that Jesus went right on and said,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John 14:1). I believe that those words were spoken by Jesus to comfort Peter. Peter, you're going to deny Me. You're going to be shaken over this. And he was. When the soldiers said, Surely you are one of His disciples, your speech gives you away. You have a Galilean accent. He began to swear, to curse, and he said, I don't know the man. And the rooster began to crow and Peter remembered the words of Jesus,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have denied me three times. And when he thought on these things, he went out and he wept bitterly. His heart was troubled. I had failed the Lord. 실제적으로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다. 내 생각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내가 믿기로는 이 말씀은 베드로를 위로하고자 하신 말이다. 베드로야, 너는 장차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로 인하여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었다. 군사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틀림없다. 네 말투를 보면 안다. 네가 갈릴리 말을 쓰는구나’라고 말했을 때,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 때 닭이 울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 났다. 그 말씀이 생각나자 그는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다. 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저버렸구나.

Actually, we read in one of the gospels that when the rooster began to crow, Jesus who was standing there, looked over to Peter. Caught his eye. And I'm sure that the look that Jesus gave to Peter wasn't one of, I told you so. Nor was it one of, You rotten crumb. You did it, didn't you? But I believe it was a look of tender compassion that broke Peter's heart. I think it was a look that said, Peter, I knew it all the time but I still love you. I still love you. 복음서에 보면, 닭이 울기 시작할 때 거기 세 계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굽어보셨다고 되어 있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고 한다. 그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낸 눈길은 ‘이 썩을 놈야. 네가 결국은 일을 저질렀구나, 응?’ 하고 꾸짖는 의미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동정 어린 부드러운 눈길이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더욱 베드로의 마음은 아프게 되었을 것이다. 그 눈빛은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이럴 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It's interesting that Peter carried that. He carried that look. He carried that guilt. When Jesus was

crucified and placed in the tomb, I'm sure it haunted Peter that the very last thing, the very last contact with Jesus was when he had failed. That look of Jesus. I failed Him. I denied Him. I love Him. I'm sure it just haunted Peter. And so when Jesus rose from the dead and appeared to the women, He said, Go tell the disciples and Peter that I have risen. And Peter was one of the first ones that Jesus appeared. On the day of His resurrection, He appeared to Peter. When the disciples came back from Emmaus and met the other disciples, they said, The Lord is risen indeed, and has appeared to the women and to Peter! The Lord had that personal little talk with Peter afterwards. And then of course, John gives us great insight into the talk at the sea of Galilee with Peter when Jesus sort of recommissioned him and put him back in the business up there at the sea of Galilee.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흥미롭다. 그는 그 눈길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 때의 죄책감 떨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무덤에 놓였을 때, 그 마지막 눈빛은 베드로를 무척 괴롭혔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가 실패했을 때 마주친 예수님의 마지막 눈빛이 주에게 자꾸 떠올랐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얼굴이 못내 그를 괴롭혔을 것이다. 내가 저 분을 배반하였구나. 내가 저 분을 부인하였구나. 저 사랑스러운 분을 말이다. 이런 생각에 베드로는 심한 자책감에 빠져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알려주어라 고 명하셨던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주셨다.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엠마오에서 돌아간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만나 한 말을 들에 귀를 기울여 보라: 참으로 주께서 살아나셨으며 여자들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단다! 후에 주님은 베드로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다. 물론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누는 그 대화를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다. 그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재차 사명을 주시며 어부로서의 사명을 재확인시켜주셨다.

So we'll get that as we move through John and get to the last chapter, twenty-first chapter, we'll get the ministry of Jesus to Peter. But even here as He is predicting, He is saying, Look,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Peter, your problem is that you believed in yourself. Believe in Me. Don't believe in yourself.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 나온다. 거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역의 일을 맡기신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도 그것은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이다: 베드로야, 네 문제는 네가 네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네 자신을 믿지 말라.

Believe in Him. Don't believe in your ability, believe in His ability. Trust in Him. 그분을 믿도록 하라.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라. 그분을 신뢰하라.

Father, we give thanks for Your love and we ask that You will put Your love in our hearts. That we might love one another, Lord, even as You loved us so that we might be a witness to the world of what You're all about. That we might be loving, Lord, and not just to those who are a part of our fellowship or agree with us, but to all of those, Lord, who are Your disciples and who love You. Unite our hearts, Lord, in Your love. In Jesus' name, Amen.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오니,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나 우리와 합의하는 사람만 사랑할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 모두를, 당신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